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위현	학번	
이메일	kwh@kdis.ac.kr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MISSOURI / GLP	(국가) 미국
기 간	2021. 1. 1. ~ 2021. 12. 31.	[귀국일:2021년12월27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2년 1월 4일

신 청 인 : 김 위 현 (인)

KDI에서의 일년간 과정을 이수하고 해외에서의 또 다른 1년 과정을 준비할 때 가슴 설레던 기억이 생생하다. 미국 어느 지역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것이 나에게 맞을 것인지, 가족들과 다같이 떠나 생활할 것인지, 아이들 학교 과정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순조롭게 타국 생활에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할 것인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행함으로써 나에게 이로울 것인지... 등등

그 때 이것저것 고심을 하던 기억조차 이젠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커다란 시행착오 없이 새로운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과 함께 말이다. 사실, 이번 미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딛는다는 건 나에게 생전 처음의 아메리카 대륙 방문이었다. 사실 '미국'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소 어렵지 않게 접해볼 수 있는 나라이고, 워낙 미디어를 통해 많은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대상이었다. 하지만, 유럽대륙을 비롯해 나름 세계여행을 좀 해본 나에게도 이번 '미국'기행은 전혀 색다른 도전이기에 충분했다.

전 인류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충격으로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특히 미국에서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가히 충격적일 만큼 공포스러웠을 시점이었기에 일년간 미국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이 내심 부담스러웠던게 당연했다. 또한 친지들이나 친구들도 많이 걱정스러워했던 게 사실이다. 미국 현지에 도착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공공장소에서 활보하고 다니는 현지인들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공공장소 어디서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의무이고 일상이었던 나에게 많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학교에서조차 마스크착용이 권고 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많이 놀랐다. 한국의 집단주의와 명확히 대비되는 미국의 개인 우선주의를 경험하며 사뭇 다른 문화적 충격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인구밀도가 높지 않고 번잡스럽지 않은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일상 생활하면서는 그다지 코로나 위험을 느끼지 못하며 생활했던 것 같다.

미주리 콜럼비아는 미국 중서부 미주리 주에 있는 도시로서 인구는 약 13만명으로 미주리 주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이다. 가까운 거리에 주도인 제퍼슨시티가 있고, 커다란 오자크 호수를 배경

으로 근사한 볼거리가 제법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나름 유명한 미주리 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의 메인 캠퍼스가 이 도시에 위치한다는 것이 이 도시의 인지도를 상당히 높여 주었다. 미주리 주의 중앙부에서 약간 북쪽에 있으며, 미주리 주의 주도 제퍼슨시티에서 북쪽으로 약 30마일(50km) 떨어져 있으며, 미주리 주의 양대도시 캔자스시티와 세인트루이스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주리 주에서는 나름대로 교통으로 중요한 도시가 된다. 분주한 콜럼비아를 조금만 벗어나도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농장을 만날 수 있고, 컬럼비아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도 때문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벗삼아 하이킹이나 자전거 트래킹을 즐길 수 있는 멋진 장소가 있다. 바로 컬럼비아에서 시작해 근교까지 이어지는 MKT 트레일은 미주리-캔자스-텍사스를 잇는 철길 위에 만들어진 14km의 레일 트레일이다. 울창한 나무 그늘로 뒤덮여 있는 트레일을 따라 걷다보면 한번도 인간으로부터 위협을 받아보지 못한 사슴 무리가 유유히 걸어가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마주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숲속에서조차 야생동물들을 직접 목격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러한 때문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정말 부러웠다.

미주리대학 교정을 거닐다 보면 많은 국제학생들과 소수민족 학생들을 볼 수 있고, 그만큼 인종의 다양성도 접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학교 관계자 분들이나 현지인 분들이 이곳 콜롬비아 시티는 거의 인종차별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았다. 사실, 콜롬비아 시내를 비롯해서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길을 가다 처음 마주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목소리로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외부에서 온 이방인이 많아서 자연스레 몸에 밴 습관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미주리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데, 컬럼비아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러한 특징을 잘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곳 콜롬비아 시가 대학 등 교육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라는 점과, 그러한 연유로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민들의 교육수준이 타 도시보다 높아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귀땀해졌다.

나는 마을 도로에 각양각색의 꽃 이름이 붙여져 일명 '꽃동네'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거주를 하였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나 스칼라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동네 어귀에서 아이들이 모여

함께 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 흡사 우리네 한적한 어느 마을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름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는 편이고, 임대료나 생활물가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편이었다.

특이하게도 컬럼비아 내에는 골프장이 많이 있고 이 지역 특성상 노년에 은퇴하신 분들이나 백인들이 많이 살아서 골프가 인기가 많은 것 같다. 항상 삼삼오오 모여서 여유롭게 골프를 즐기시는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볼 때마다 언제나 봄비고 다소 여유가 없는 한국에서의 노년 생활이 많이 비교되곤 하였다.

미주리 대학의 비학위인 Global Leadership Program은 Asia Affair Center에서 공무원이나 대학교수, 국영 기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설되는 강좌는 미국 내 정치 이슈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생활 풍습 등 다양한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고 주로 Native Speaker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강의가 진행된다. 비학위 과정으로 Global Readership Program을 참여하면서 미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국내 다양한 이슈들을 접하면서 미국 현지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대부분의 수업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고 토론하는,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기초로 한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 강의실에서는 강의시간에 다루어지는 주제에 대하여 교수와 학생들간의 상호 능동적인 의사소통에 기초하고 있는 점이 많은 차이가 있었다.

한번은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요리들을 직접 요리해보고 취식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강좌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 선생님께서는 일일이 그날 요리할 재료는 물론 취사도구까지 챙겨와서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이 직접 요리해보고 시식해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셨다. 각 수강생들이 각기 다른 요리를 선생님께서 손수 준비해주신 레시피를 참조하여 직접 요리해보고 다 만들어진 요리들을 서로 공유하여 품평을 하는 방식이었다.

강좌에 참여하는 내내 여러 가지 독특한 미국 음식을 요리해보고 시식해보는 즐거움도 컸지만, 무엇보다 실질적인 체험학습을 위해 매번 꼼꼼하게 손수 준비물을 준비해주시고, 수강생들이 더 많이 배워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던 선생님의 강의 열정에도 찬사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역시 이론보다는 실질적 체험을 보다 중요시하는 미국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었다. 그리고 아시아센터에서 주관하는 field trip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현지 가볼만한 곳을 방문하면서 지역사회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미주리 콜럼비아 대학 AAC에서는 스칼라들은 물론 함께 온 배우자들이 원어민으로부터 직접 영어를 배우고 현지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바로 Spouse Program, Accent Modification Program, Conversation Partners Program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미주리 콜럼비아 대학 영어교육과 학생들과의 제휴를 통하여 스칼라들의 언어실력 향상을 돕는 accent modification program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영어 발음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고, 현지 학생들과 자연스런 일상 대화를 통하여 잘 몰랐던 현지인들의 생활 모습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Spouse Program은 센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스칼라분들의 배우자의 온전한 콜럼비아 정착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인데, 와이프가 첫학기 생소한 콜럼비아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 주는 아주 유용한 수업이었다고 칭찬을 많이 하였다. 필수적인 콜럼비아에 대한 안내와 그에 따르는 영어 표현, 그리고 직접 체험과 방문으로 이어지는 이 Spouse Program은 콜럼비아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필수 코스라고 여겨질 정도로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동병상련의 다른 배우자분들과 유대와 친목을 쌓은 계기도 되고, 여러 정보 공유도 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자연스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칼라 부부들과 유대관계를 통하여 커뮤니티를 생성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연락을 통하여 쉽게 해결함으로써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줬던 좋은 프로그램이라 여겨진다.

KDI GMP 2년차 미국에서의 과정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 준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다. 낯선 이국땅에서 직접 생활하며 타 문화에 대한 이해심과 글로벌 마인드를 넓힐 수 있었고, 언제나 바쁜 일상속에서 돌아보지 못했던 나 자신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일깨워볼 수 있었다. 다시 한번 KDI에서 학창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함과 더불어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나 자신은 물론 우리가족 모두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영애	학번	202011026
이메일	jinlingai@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KDIS 국제정책대학원 / 비학위	(국가) 미국
기 간	2021. 12. 28 ~ 2021. 12. 21	[귀국일: 2021년12월21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미주리 주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며, 겨울이 춥고 여름은 덥다. 기온은 대략 서울정도였다. 여름이 건조한 편이고 가을, 겨울에 가끔 비가 내렸으며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습도가 낮았다. 날씨가 춥거나 더워도 냉난방이 잘되어 생활하기는 쾌적했고, 겨울에 가끔 눈이 내리면 제설작업이 놀랍도록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미주리 주는 미국중부지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서부를 향해 출발했던 관문지역으로 루이스와 클락이 미국 서부개척을 위한 초기 탐사를 했던 길들이 역사적 유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있고, 곳곳에 공원과 공원들이 둘레길로 연결되어 있다.

미주리대학교가 있는 콜럼비아는 인구 약 12만명인 교육도시다. 콜럼비아 시에 위치한 4개 대학은 미주리 대학교, 스테판 칼리지와 콜럼비아 칼리지 등이다. 도시가 작은 데 비해 월마트, 하이비, 슈넥, 알디, 내취럴그로서리 등 대형 쇼핑몰이 많이 있어서 생필품 구입에는 불편이 없었다.

리즈마켓이라는 한인가게와 홍콩마켓이라는 아시아물품을 파는 가게가 있어서 김치, 야채, 돼지고기, 소고기, 어류, 새우 등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동서로 각각 2시간 거리에 있는 대도시인 세인트루이스와 캔자스시티로 가면 더 큰 한인마트가 있어서 식성이나 기호에 맞는 물건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미주리 주 수도인 제퍼슨시티와는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그 곳으로 파견된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대부분 콜럼비아에서 살고 있어서 콜럼비아가 비교적 안전하고 생활하기 쾌적한 것으로 생각했다.

콜럼비아에서 방문학자들이 거주하는 집들은 대부분 미주리대학교에서 15분 이내 거리에 있어서 통학이 편리했고 기숙비보다 저렴했다. 코로나 이후로 전반적으로 주택 임차료와 자동차 가격이 인상되는 추세였다. 국공립학교는 초중고 모두 수업료가 무료인 듯 했고, 사립학교는 별도로 수업료를 납부해야한다고 들었다. 고등학교는 히커만 고등학교, 락브리지 고등학교 등 있었는데, 락브리지 고등학교는 하버대학교 등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다.

히커만 고등학교는 일반고처럼 보였고, 히커만 고등학교 근처에 대안고등학교도 하나 있었다. 중학교는 제퍼슨 중학교 등이 있었는데 과학수업 등이 잘 운영되는 학교라고 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교육과정은 영어 말하기, 쓰기, 토론, 창업, 경제, 금융, 환경, 요리, 미국도시, 미국역사, 미국교육 등 각 세션마다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각 세션마다 개인별, 영어실력별로 수강신청을 해서 듣고 싶은 과정을 들을 수 있었다.

교육기관의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핵심(코어)과정은 별도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강사들은 교사, 목사, 어학과정 강사, 대학교 교수, MBA 등 기본적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기초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육과정 개설은 강사들이 본인의 교육배경에 따라 매 세션마다 강의계획을 제출하면 직전학기 강의 만족도, 학생들의 수요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설여부가 결정됐다. 그래서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 경우, 강의 만족도 조사를 할 때 다음 학기에 개설되었으면 하는 교과목이나 현장학습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출하면 그대로 반영되었다.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 교육운영 일정에 따라 일정이 편성되었으며, 학생들이 폭설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은 휴강하는 등 학부모인 방문학자들이 자녀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되었다. 그로 인해 가끔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보강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미주리대학교 비학위 교육과정은 봄, 여름, 가을 3개 학기로 나뉘고, 봄과 가을학기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학기당 수강과목은 봄, 가을에는 세션당 4과목, 여름학기는 3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과목을 듣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수업은 매 세션별로 6~7주간 각 과목별로 주별로 2시간씩 수업을 했고 수업시간은 70~90분 정도 학기별로 달랐다.

여름학기 강의는 교육내용도 비교적 가볍고 쉬운 주제들을 다루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들어도 되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듣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또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개인과제나 공공기관 인턴활동으로 학점을 대체할 수도 있는데, 학기 초부터 준비해서 학교 담당자와 협의하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를 하면 좋다.

강사들은 대체로 열심히 가르치는 편이었고, 매 과목마다 프레젠테이션 또는 토론진행 1회 이상, 발표 1회 이상, 쓰기과제 3회 이상 등 과제 제출이 요구되었다. 몇몇 강사들은 수업참여만으로 수업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평가는 강사에게 전적으로 일임되어 있어서 강사에 따라 점수를 엄격하게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숙소는 미주리대학교 아시아어페어센터에서 전년도에 있었던 방문학자들의 주택과 자동차관련 자료를 미리 공지해주기 때문에 개인별 재정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연락해서 기호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할 경우, 기숙사를 소개해주기도 하지만 기숙사를 이용할 경우 기숙사 내부에 세탁기가 없어서 공용 세탁기를 이용해야 해서 다소 불편할 수 있다.

미주리대학교 학생인 경우 타이거 캐쉬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학기 초에 800불 정도를 내고 신청하면 학교 내 식당에서 학기동안 50~60%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방문학자들은 골드 캐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별도 예치금이 필요 없지만, 학교 내 식당에서 식음료비가 10% 할인된다. 학교 내 식당 음식은 그저 먹을 수 있는 정도여서 타이거 캐쉬는 신청하지 않는 편이 낫고, 음식 만들기가 어렵거나 시간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골드 캐쉬 이용이 더 유용하다. 경제적인 면이나 건강을 위해서는, 식성에 맞는 음식을 준비해서 도시락을 싸다니는 편이 좋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미주리대학교 아시아 어페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모닝토크와 필드트립을 개최하는데 빠짐없이 참여하면 1년 정도 지난 후에 미주리주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에 대해 일정 정도 이상의 소양을 쌓을 수 있고, 영어 실력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 외 분카운티 지역도서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어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꾸준히 들은 분들이 문법이나 말하기가 크게 향상된 것을 봤다. 또 가급적이면 그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나 독서토론회 참석하는 것도 좋을 듯하며,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도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매주 토요일 오전에 파머스마켓이 열리므로 참여하면 지역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어떤 나라이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저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업무를 하면서 또는 KDI 1년차 과정에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었던 내용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었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 미국정부의 재정현황, 미국국민들의 아시아인에 대한 정서 등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또 외국에서 제2 외국어 학습자로서 고충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개방성과 다양성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또 낯선 환경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진단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체류기간동안 글쓰기 세미나를 통하여 영어쓰기를 제대로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소개하는 여행사를 통해서 보험과 비자신청 했고, 준비하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출, 입국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는데 주의할 사항은 공항에서 환승할 때 게이트가 여러 번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항 게시판이나 게이트 근무자에게 탑승위치가 맞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외국에서도 국내 금융기관 앱을 이용해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출국하기 전에 주거래은행에서 외국환관련 신고를 하고 가야 국내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2년차 과정을 준비하면서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을까, 혹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고 불안에 떨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그 걱정을 할 시간에 1년차 과정 수업을 열심히 듣고 영어공부나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후회가 된다. 그리고 학위과정을 공부하고 싶어서 IELTS 자습 교재를 사서 공부하면서 학원수업을 시간 날 때마다 들었는데, 영국식 발음이 어렵고 안 들려서 고생했고, 말하기, 쓰기 점수도 만나와서 속앓이를 하면서 학위과정 공부하다가 그만 뒀다. 혹시 미국에서 학위과정을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IELTS 공부하려면 서울 유명한 학원 인터넷강의나 대면강의를 꾸준히 듣거나 토플공부를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교학처장 귀하

2022년 1월 11일

신청인 : 김 영 애 (인)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최대범	학번	
이메일	dbchoe@kdis.ac.kr		

대학원명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 GLP	(국가) 미국
기 간	2021.1 ~ 2021.12	[귀국일: 2021년 12월 27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 학교 등)

- 기후, 지리적 위치
 - ✓ 한국처럼 사계절이 모두 있고, 평균기온은 12도(1월 -2도, 7월 25도)이며 돌풍(storm), 토네이도가 때때로 오기도 하여 여행계획을 세울 때 날씨 예보를 꼭 참고하기 바람. 공기는 한국에 비해 깨끗하여 미세먼지 현상은 거의 못 느꼈으며, 햇빛은 강렬하여 외부 활동시 썬크림 필요성을 많이 느낌.
 - ✓ 겨울에 얼음비(freezing rain)나 폭설이 내리면 시교육청 재량으로 Public school이 휴교하게 되며 이에 맞춰 Global Leadership Program(GLP)도 휴강하게 된다.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가정을 위해 GLP수업일정이 학교 일정에 연동하여 조정된다고 보면 됨.
- 생활관련 사항, 자녀 학교 등
 - ✓ 가족단위 학생들의 경우 '듀플렉스'라고 하는 주택 두 채가 하나로 붙어 있는 집에 주로 거주하며, 단독으로 오는 경우 아파트 형태 또는 현지 한인 집에 하숙하는 경우가 많음. 단독 주택의 경우 월 700~1,200불 가량이 소요되며 저의 경우는 락브릿지쪽 Student housing에 가족(4인)이 거주 했으며 월세는 월 1,200불이 소요되었음.
 - ✓ 한국인 연수생들의 경우 윈드리버(서부), 밀브룩(서부), 락브릿지(남부), 꽃동네(북서부), 팀버 크릭(북서부) 등에 주로 모여 살고 있음.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과 미국 현지인들 사이에 섞여 사는 것은 각기 장단점이 있어 본인이 바라는 바에 따라 정하면 될 것임. 한

국인들끼리 모여 살면 자녀 교육이나 생활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음. 미국 현지인들과 섞여 살게 되면 영어 환경에 많이 노출되므로 본인이나 가족의 영어 활용을 늘리길 원할 경우 고려해 볼만 함.

- ✓ 자녀 학교 배정은 공립학교는 주소지에 따라 결정됨. 이 곳도 지역에 따라 소위 '학군'이 존재해 유색인종 비율, 소득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학교 분위기, 학력격차가 있어 거주지역 결정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2.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 수업은 봄(2세션), 여름(희망자만 이수), 가을(2세션)학기로 이루어지고, 이외에 미주리대(MU) 영어발음 전공 학생과의 Accent Modification Program, MU 일반 학생과의 Conversation Partners Program이 있음.
- 그리고 매일 아침 수업 전에 Asian Affairs Center(AAC)에서 주관하는 Morning Talk 시간이 있는데, 30~40분 정도 미국 내 주요 언론 기사를 활용하여 묻고 답하는 대화시간임. 꾸준히 참여하게 된다면 영어 스피킹 연습도 될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면 미국 등 영어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됨.
- 강사진은 전직 교수, 영어교육 전문가, 전직 공립학교 교사 등 다양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공도 다양하며 교육의 질과 수준에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느꼈음.

3.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성, 논문작성 강도 등)

- 기본수업은 봄학기 2세션(14주), 여름학기(4주), 가을학기 2세션(14주) 정도로 구성됨. 수강과목은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과목, 콘텐츠 위주의 수업, 초기 현지 생활정착을 위한 수업 등으로 이루어짐.
- 예를 들면,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과목은 'Reading, Reflection & Writing', 'American Literature Book Club', 콘텐츠 중심 과목으로 'American Political Institutions',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초기 생활정착을 돕기 위한 과목으로 'Welcome to Columbia', 'Plan Your Vocation Now! Great Places to Visit in North America' 등을 들 수 있음.

4.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혼자 오는 분들은 기숙사나 학교 인근 아파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은 듀플렉스를 대부분 이용함.
- 음식은 한인마트(Lee's market)나 홍콩마켓 등에서 한국 식재료를 구해 한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월마트(Walmart)나 샘스클럽(Sam's club) 등에 가끔 한국의 신라면, 컵라면이 입고될 때 충분한 양을 사두는 것을 권함.
- 물가면에서 보자면 마트에서의 식재료 가격은 한국보다도 약간 저렴하다고

느꼈으며, 식당 등에서는 팁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조금 비싸다고 느꼈음.

5.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배우자의 경우 AAC에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Spouse Program 참여를 권함. 처음 정착에 필요한 생활 정보를 제공받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익힐 수 있고 배우자들간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 곳 생활의 적응에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하며 배우자와 같이 오시는 분이라면 배우자의 참여를 적극 권함.
- 운전면허는 같이 오시는 분 모두 운전면허가 있으시다면 가능하면 모두 미국 면허를 따는 것을 권함. 장거리 여행시 한 사람만 운전해서 가기보다는 교대로 운전해서 가는 게 운전자의 피로도 줄이고 안전면에서 바람직함.
- 자동차보험은 6개월단위로 가입하는데 처음 6개월은 미국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가입하므로 보험료가 조금 높은 편이나, 6개월후 미국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이 때도 여러 보험사 견적을 받아 비교하여 가장 좋은 조건에 가입하기를 권함.

6.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코로나19 관련 수업 진행 관련)

- AAC 수업은 봄학기 동안은 온라인 수업 과목과 대면수업 과목을 커리큘럼에 절반씩 편성하여 진행했으나, 여름학기부터는 모두 대면수업으로 진행했고 수업시간에는 모두 마스크를 쓰도록 했음.
- 아이들 학교생활에서의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는, 상위 규정인 Federal protocol에 따라 스쿨버스 규정은 마스크 의무 착용이지만, MU가 소재한 Columbia의 School Board에서는 수업시간 중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해 찬반 투표결과 지난 1월14일부터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다가,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되어 다시 착용하게 했다고 함.
- 우리나라 정서상으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사람들의 건강 관련 사안(마스크 의무 착용)이 정치적인 것과 함께 연계되어 찬반이 갈리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음.

7.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 항공권을 구입한 전문 여행사에서 비자 대행을 해주어 비자에 별 어려움은 겪지 않음. J1, J2 비자의 경우 미 영사관 인터뷰할 때 어디로 가는지,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학비 지원은 어디에서 하는지 등 간단한 질문만 했던 것으로 기억함. 미국 입국 심사 때도 마찬가지로 서류만 확인할 뿐 가족 모두 질문은 거의 없었음.
- 혹시, 미국 체류 중에 해외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에 DS-201X에 MU 인터내셔널 센터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재입국시 출입국 심사할 때 보여주면 됨.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비 학위 과정은 학위 과정에 비해 학업에 대한 부담은 덜하지만 연수기간 동안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지 오기 전에 방향을 잡고 오지 않으면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날 수 있음. 영어능력 향상, 미국문화 체험, 자녀 교육 등 본인의 관심과 연수 목적 내에서 적절한 시간 배분을 통해 당초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람.

교학처장 귀하

2022년 1 월 19 일

신청인 : 최 대 범 (인)

